

Session 15 Feeding the 5,000 and Walking on the Water (Mk. 6)

제 15 강 5,000 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심 (막 6 장)

I. INTRODUCTION

도입

- A. In this session, we will look Jesus' final visit to Nazareth (Mk. 6:1-6a), His third (final) tour of Galilee (Mk. 6:6b), sending out the apostles (Mk. 6:7-13; see session 14), John the Baptist's death (Mk. 6:14-29), Jesus feeding the 5,000 (Mk. 6:35-44) and walking on the water (Mk. 6:47-52).

이 강의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렛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신 것과 (막 6:1-6a), 갈릴리를 세 번째로 (마지막) 방문하신 것 (막 6:6b), 사도들을 보내신 것 (막 6:7-13; 14 강 참조), 세례 요한의 죽음 (막 6:14-29), 예수님이 5,000 명을 먹이신 것 (막 6:35-44),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것을 살펴본다.

- B. These events occurred in Galilee sometime between late AD 28 and the spring AD 29.

이 사건들은 갈릴리에서 AD 28 년 말과 AD 29 년 봄 사이에 일어났다.

II. JESUS WAS REJECTED IN NAZARETH (MK. 6:1-6)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배척 당하심 (막 6:1-6)

- A. Jesus was rejected in Nazareth (Mk. 6:1-6a; cf. Mt. 13:54-58). Jesus wanted His disciples to see that even He was rejected by those nearest and dearest to Him so that they should expect rejection as part of kingdom reality. Jesus was rejected twice by people in Nazareth (Lk 4:16-30; Mk 6:1-6).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셨다 (막 6:1-6a; 비교. 13:54-58). 예수님은 그분이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사랑하던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을 자신의 제자들이 보기를 원하셨으며, 이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배척당할 수도 있음을 알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두 번이나 배척당하셨다 (눅 4:16-30; 막 6:1-6).

¹Then He went out from there and came to His own country, and His disciples followed Him. ²...He began to teach in the synagogue. And many hearing Him were astonished, saying, "Where did this Man get these things? And what wisdom [Jesus' new ideas] is this...that such mighty works are performed by His hands! ³Is this not the carpenter, the Son of Mary, and brother of James, Joses, Judas, and Simon?... " They were offended at Him. ⁴But Jesus said to them, "A prophet is not without honor except in his own country...and in his own house."

⁵He could do no mighty work there, except that He laid His hands on a few...and healed them. ⁶He marveled because of their unbelief. Then He went about the villages in a circuit, teaching. (Mk. 6:1-6)

¹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² ...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예수님의 새로운 생각들]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나 ³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 예수를 배척한지라 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⁵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도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⁶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막 6:1-6)

- B. **Where:** They questioned the source of His power and wisdom (6:2), knowing that the leaders from Jerusalem had declared that the source of His power was demonic (Mk. 3:22).

어디서: 그들은 그분의 권능과 지혜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의문을 품었는데 (6:2), 이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그분의 권능이 악한 것에서 나온 것이라 선포했기 때문이다 (막 3:22).

- C. **He marveled:** For nearly 2 years, many testimonies of His powerful miracles had circulated. Matthew added that He did not do many mighty works there because of their unbelief (Mt. 13:58). God chose to limit His miracles in response to His people's response of faith in Him.

이상히 여기셨더라: 거의 2년 동안, 그분의 놀라운 기적들에 대한 간증과 소식들이 있어왔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분이 그들의 불신 때문에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심을 덧붙이셨다 (마 13:58).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가지는 믿음에 따라 기적을 베푸셨다.

- D. **Offended:** He had not received His new teachings from them or those in authority, He failed to do great miracles for them; they knew Him only as a manual laborer who was simply one of them. He referred to a well-known saying that highlighted a principle—familiarity breeds contempt.

배척한지라: 그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은 그분의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분은 그들에게 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들은 그분을 단지 그들과 함께하던 육체 노동자로 봤다. 그분은 잘 알려진 속담을 사용하셨다, 익숙함은 경멸을 낳는다.

- E. **In a circuit:** Jesus' third and final tour of Galilee (Mk. 6:6; cf. Mt. 9:35-38) was in late AD 28. Jesus deeply desired that all hear the good news, so He traveled to many of their villages.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갈릴리 여정은 AD 28년 말에 있었다 (막 6:6; 비교. 마 9:35-38).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셨기에 많은 마을들을 방문하셨다.

- F. Jesus had commissioned and sent out the 12 apostles (Mk. 6:7-13; cf. Mt. 10:1-42; Lk. 9:1-6). He sent them out in early AD 29. (We looked at the sending out of the Twelve in session 14). He was passionate about partnership with His people, so He anointed them speak the good news.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세워서 보내셨다 (막 6:7-13; 비교. 마 10:1-42; 눅 9:1-6). 그분은 그들을 AD 29년 초기에 보내셨다 (제자들을 보내시는 부분은 14강에서 살펴봤음).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과 동역하시는 것에 열정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름 부으셨다.

⁷And He called the twelve to Himself...to send them out two by two, and gave them power over unclean spirits...¹²They went out and preached that people should repent. ¹³And they cast out many demons, and anointed with oil many who were sick, and healed them. (Mk. 6:7-13)

⁷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 ¹²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¹³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막 6:7-13)

III. HEROD ANTIPAS KILLED JOHN THE BAPTIST (MK. 6:14-34)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이다 (막 6:14-34)

- A. Herod Antipas killed John the Baptist (Mk. 6:14-29; cf. Mt. 14:1-12; Lk. 9:7-9). Mark described John the Baptist's death in more detail than his ministry (Mk. 1:4-8). Why? Because John's death exemplified the reality that preaching God's word leads to persecution and sometimes to death. John the Baptist was a very great man (Mt. 11:11)—he is a premier example of being a faithful witness in the face of great persecution. He refused to draw back on the message God gave him.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였다 (막 6:14-29; 비교. 마 14:1-12; 눅 9:7-9).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의 사역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막 1:4-8).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핍박이나 때로는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예를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었다 (마 11:11). 그는 큰 핍박 가운데에서도 충성된 증인으로 남아있었던 최고의 예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¹⁴Now King Herod heard of Him [Jesus]...he said, "John the Baptist is risen from the dead, and therefore these powers are at work in him"...¹⁷Herod himself had sent and laid hold of John, and bound him in prison for the sake of Herodias, his brother Philip's wife; for he had married her.
¹⁸Because John had said to Herod, "It is not lawful for you to have your brother's wife." ¹⁹Therefore Herodias held it against him and wanted to kill him... (Mk. 6:14-19)

¹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 ¹⁷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¹⁸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¹⁹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막 6:14-19)

- B. Herodias waited for an opportune time to persuade Herod to kill John the Baptist (Mk. 6:21-26).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해 헤롯을 설득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막 6:21-26).

²¹Then an opportune day came when Herod on his birthday gave a feast for...the chief men of Galilee.
²²And when Herodias' daughter...danced, and pleased Herod...the king said...,
"Ask me whatever you want..." ²⁴She said, "The head of John the Baptist! (Mk. 6:21-24)

²¹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²²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 ²⁴ ...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막 6:21-24)

- C. The apostles returned from ministry and reported to Jesus, then He withdrew with them by boat to a remote place just southeast of Bethsaida (Mk. 6:30-34; cf. Mt. 14:13-14; Lk. 9:10-11; Jn. 6:1-3). Jesus understood that one of their greatest needs was to receive teaching about God's ways.

사도들은 사역에서 돌아와 예수님에게 보고했으며, 그분은 그들과 함께 보트를 타고 벳세다 남동쪽의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다 (막 6:30-34; 비교. 마 14:13-14; 눅 9:10-11; 요 6:1-3). 예수님은 그들의 가장 큰 필요가 하나님의 길에 대해 배우는 것임을 알고 계셨다.

³⁰Then the apostles gathered to Jesus and told Him all things, both what they had done and what they had taught. ³¹And He said to them, "Come aside...to a deserted place and rest a while."
For there were many coming...and they did not even have time to eat. ³²So they departed to a deserted place in the boat by themselves. ³³But the multitudes saw them departing, and many... ran there on

foot...They arrived before them...³⁴Jesus...saw a great multitude and was moved with compassion for them...so He began to teach them many things. (Mk. 6:30-34)

³⁰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날날이 고하니 ³¹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³²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³³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이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 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³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막 6:30-34)

IV. FEEDING 5,000 AND WALKING ON WATER—THE GREATER MOSES

5,000 명을 먹이고 물 위를 걸으심 - 모세보다 큰 자

- A. Jesus performed two miracles that are intended to be understood together—feeding the 5,000 and walking on the water. These miracles showed Jesus to be the Son of God as the greater Moses who supernaturally provided food in the wilderness and demonstrated His power over the sea.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 두 가지는 함께 이해해야 하는데, 바로 5,000 명을 먹이신 것과 물 위를 걸으신 일이다.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세보다 큰 자로서 광야에서 초자연적으로 먹이며 바다에 대해 권능을 가지신 것을 보여준다.

- B. The feeding of the 5,000 presented Jesus as their provider and walking on the water as their protector in the face of fearful circumstances. These miracles expressed His provision when human resource is insufficient and His protection when human power is inadequate. These miracles revealed His deity as the Son of God and foreshadowed His end-time miracles (Mic. 7:15).

5,000 명을 먹이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주시며, 물 위를 걸으신 것은 두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분이심을 보여준다. 이 기적들은 인간이 가진 것이 부족할 때 그분이 공급하시며, 인간의 능력이 부족할 때 그분이 보호하심을 보여준다. 이 기적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신성을 가지시며, 이를 통해 마지막 때에 그분이 행하실 기적들을 미리 보여준다 (미 7:15).

- C. These two miracles happened at the time of Passover (Jn. 6:4)—the historical event when God saved His people from Egypt. Passover reminded them of the time God miraculously sent manna and controlled the sea. God's power over food and water are a key part of Israel's salvation story.

이 두 기적들은 유월절에 일어났으며 (요 6:4),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유월절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나를 보내시며 바다를 움직이신 일을 기억나는 날이다. 먹을 것과 물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은 이스라엘의 구원 스토리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 D. When Jesus multiplied the loaves and walked on the water, He was declaring that He was God, that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Lk. 1:37), and that He was worthy of their love and obedience.

예수님은 빵을 배가시키며 물 위를 걸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었고, 그분께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선포하고 계셨다 (눅 1:37). 그분은 그들이 사랑과 순종을 드리기에 합당한 분이였다.

V. JESUS FED THE 5,000 (MK. 6:35-46)

예수님이 5,000 명을 먹이심 (막 6:35-46)

- A. Jesus multiplied food for 5,000 men (Mk. 6:35-44; cf. Mt. 14:15-21; Lk. 9:12-17; Jn. 6:4-13). It occurred in a remote area on the northeast side of the sea, just a few miles south of Bethsaida. Feeding the 5,000 is the only miracle recorded by all four Gospels, and Mark referred to it two more times (6:52; 8:17-21), emphasizing how important it was—revealing Jesus’ identity as God.

예수님은 5,000 명의 남자들을 위해 음식을 배가시키셨다 (막 6:35-44; 비교. 마 14:15-21; 눅 9:12-17; 요 6:4-13). 이 일은 갈릴리 바다의 북동쪽의 외딴 곳에서 일어났으며, 벳세다 남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곳이었다. 5,000 명을 먹이는 것은 4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며, 마가복음은 이를 두 번 더 언급하며 (6:52; 8:17-21) 이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보여준다.

³⁵ ...His disciples came to Him and said, **“This is a deserted place, and already the hour is late. ³⁶Send them away, that they may go into the surrounding...villages and buy themselves bread; for they have nothing to eat.”** ³⁷But He...said to them,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And they said to Him, **“Shall we go and buy two hundred denarii worth of bread...?”** (Mk. 6:35-37)

³⁵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³⁶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한글 KJV: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하니라) ³⁷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막 6:35-37)

- B. **Give them something to eat:** He called them to do something that was beyond their abilities and resources. He wanted them to look to Him as their source to accomplish His will. They looked to their own resources and concluded they were not able to do what He called them to do. A denarius was a day’s wage for manual labor—200 denarii was nine months of wages, about \$20,000 today.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분은 그들의 능력과 가진 것을 넘어서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모든 근원이 그분 자신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들은 가진 것을 확인한 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 데나리온은 육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으며, 200 데나리온은 2 천만원이 넘는 9 달 봉급과 같은 금액이었다.

- C. Jesus commanded them to sit down. This orderly arrangement of the multitudes into groups of hundreds and fifties is reminiscent of the camp of Israel under Moses’ leadership (Ex. 18:21).

예수님은 그들을 앉게 하셨으며, 이렇게 사람들을 백 명, 오십 명씩 그룹으로 구분해서 앉힌 것은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이 머물던 방식을 연상시킨다 (출 18:21).

³⁸But He said to them, **“How many loaves do you have?... they said, “Five, and two fish.” ³⁹Then He commanded them to make them all sit down...on the green grass. ⁴⁰So they sat down in ranks, in hundreds and in fifties...⁴¹He had taken the five loaves and the two fish...and gave them to His disciples to set before them...⁴²They all ate and were filled. ⁴³And they took up twelve baskets full of fragments...⁴⁴Now those who had eaten...were about five thousand men.** (Mk. 6:38-44)

³⁸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³⁹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⁴⁰ 떼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았는지라 ⁴¹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⁴² 다 배불리 먹고 ⁴³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⁴⁴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더라 (막 6:38-44)

- D. **12 baskets:** Jesus' provision was so abundant that there were 12 baskets of extra food. This may have represented the 12 tribes of Israel showing that Jesus was the One anointed to lead Israel. Each of the 12 apostles carried a basket, wading among the multitudes, distributing food to them.

열두 바구니: 예수님의 공급하심은 너무도 넘쳤기에, 12 바구니나 음식이 남았다. 이는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실 기름부음 받은 자임을 보여준다. 12 사도들은 바구니를 날랐으며,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니며 음식을 나눠줬다.

- E. This miracle happened just before the Passover in AD 29 (Jn. 6:4). Passover was a time when Israel celebrated deliverance from the oppression in Egypt by God—who intervened with great miracles.

이 기적은 AD 29 년 유월절 바로 전에 일어났다 (요 6:4).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기적들을 통해 애굽의 핍박에서 구원된 일을 기뻐하는 절기였다.

⁴Now the **Passover**, a feast of the Jews, was near... ¹¹Jesus took the loaves,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distributed them... ¹⁴Then those men, **when they had seen the sign** that Jesus did, said, "This is truly **the Prophet** who is to come into the world." ¹⁵Therefore when Jesus perceived that they were about to come and **take Him by force to make Him king, He departed again to the mountain by Himself alone.** ¹⁶Now when evening came, His disciples went down to the sea, ¹⁷got into the boat, and went over the sea **toward Capernaum.** And it was already dark, and Jesus had not come to them. ¹⁸Then the sea arose because a **great wind** was blowing.

(Jn. 6:4-18)

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 ¹¹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 ¹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¹⁵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¹⁶ 저물때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¹⁷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¹⁸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요 6:4-18)

- F. **The Prophet:** The feeding of the 5,000 energized some of the Galileans to seek to force Jesus to be king as they saw Him as "the Prophet" (Jn. 6:14-15) of whom Moses had prophesied (Deut. 18:15).

그 선지자: 5,000 명을 먹이신 일로 인해 갈릴리 사람들 일부는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들은 그분이 모세가 예언한 (신 18:15) 바로 "그 선지자" (요 6:14-15)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G. **Alone:** Jesus went up a mountain alone to pray (Mk. 6:46) and to avoid those seeking to make Him king. I would think He was praying for His disciples to receive revelation of Him as the God-man.

혼자: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막 6:46),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는 자들을 피하기 위해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나는 그분이 제자들이 하나님이자 인간이심에 대한 계시를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셨다고 생각한다.

⁴⁶And when He had sent them away, **He departed to the mountain to pray.** (Mk. 6:46)

⁴⁶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막 6:46)

VI. JESUS WALKED ON THE WATER (MK. 6:47-52)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심 (막 6:47-52)

- A. Jesus walked on the Sea of Galilee (Mk. 6:47-52; cf. Mt. 14:24-33; Jn. 6:16-21). The feeding of the 5,000 was a miracle that was meant to teach the disciples a lesson about Jesus' identity as the Son of God and walking on the water confirmed this. The fourth watch was between 3 am to 6 am.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다 (막 6:47-52; 비교. 마 14:24-33; 요 6:16-21). 5,000 명을 먹이신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는 레슨이었고,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이것을 확인해주는 기적이었다. 밤 사경쯤은 새벽 3 시에서 6 시 사이이다.

⁴⁵ **Immediately He made His disciples get into the boat and go before Him to the other side, to Bethsaida...** ⁴⁶ **He departed to the mountain to pray.** ⁴⁷ **When evening came, the boat was in the middle of the sea...** ⁴⁸ **Then He saw them straining at rowing, for the wind was against them.**

Now about the fourth watch of the night [3 am–6 am] He came to them, walking on the sea...

⁴⁹ **And when they saw Him walking on the sea, they supposed it was a ghost, and cried out...**

⁵⁰ **but immediately He talked with them and said..., "Be of good cheer! It is I; do not be afraid."** (Mk. 6:45-50)

⁴⁵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새다로 가게 하시고 ⁴⁶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⁴⁷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⁴⁸ 바람이 거스르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새벽 3 시-6 시]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⁴⁹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명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⁵⁰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막 6:45-50)

- B. **Immediately:** Jesus immediately made His disciples depart for the other side of the sea (Mk. 6:45). He urgently sent the disciples away by boat, possibly to hinder them from stirring up the multitude even more by giving them further details about the miraculous aspects of feeding the 5,000 (since the apostles did not yet understand Jesus' deity or mission). Also, He wanted to teach them about who He was in context to walking on the sea—only God has power over creation and its laws.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즉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다 (막 6:45).

그분은 제자들을 긴급히 배로 보내셨으며, 이는 아마도 그들이 5,000 명을 먹이신 기적적인 일을 무리들에게 더 자세히 말해서 그들을 흥분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아직 예수님의 신성이나 임무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그분은 물 위를 걷는 일을 통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물과 그 법칙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 C. **The other side:** Mark described the disciples as going by boat to "the other side" (Mk. 6:45) simply because they had to "cross some water" to get there; however, they did not travel very far.

건너편: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막 6:45), 이는 단지 그들이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물을 건너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 멀리 가지 못했다.

1. **Review:** After the disciples returned from their preaching tour and reported to Jesus, He withdrew with them by boat to a remote area just southeast of Bethsaida (Mk. 6:30-34; Lk. 9:10). It was close enough for people to walk there. Jesus fed the 5,000 in that remote area.

복습: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돌아와 예수님에게 보고한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벳세다 남동쪽의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다 (막 6:30-34; 눅 9:10). 이는 사람들이 걸어서 가기에 충분히 가까운 곳이었다. 예수님은 이 한적한 곳에서 5,000 명을 먹이셨다.

2. After feeding the 5,000, Jesus sent the disciples ahead of Him by boat and then went to a mountain to pray—the disciples rowed northward towards Bethsaida (Mk. 6:45), but a strong wind drove them slightly south-westward toward Capernaum (Jn. 6:16), and they landed at Gennesaret (Mk. 6:53). Capernaum was 6 miles west of Bethsaida—both cities are on the northern coast of sea in the same direction by sea.

예수님은 5,000 명을 먹이신 후, 제자들을 먼저 배로 보내신 후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가셨다. 이 제자들은 벳세다 방향의 남쪽으로 노를 저어갔지만 (막 6:45), 강한 바람으로 인해 그들은 약간 남서쪽인 가버나움 쪽을 향하고 있었다 (요 6:16). 그리고 그들은 게네사렛에 도착했다 (막 6:53). 가버나움은 벳세다 서쪽으로 6 마일 (10km 가량) 떨어진 곳이었으며, 이 두 도시는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 해변의 동일한 방향에 위치해 있었다.

¹⁶...His disciples...¹⁷went over the sea toward Capernaum. And it was already dark, and Jesus had not come to them.¹⁸Then the sea arose because a great wind was blowing.

¹⁹So when they had rowed about three or four miles, they saw Jesus walking on the sea.

²¹They willingly received Him into the boat, and immediately the boat was at the land... (Jn. 6:16-21)

¹⁶ 저물때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¹⁷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¹⁸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¹⁹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 리쯤 가다가 [3-4 마일, 5-6km 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 ²¹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 6:16-21)

- D. **Walking on Water:** This was a far greater miracle than when He calmed a storm (Mk. 4:35-41). This demonstrated His power over the laws of nature. He had power to enable Peter to do the same. In addition to walking on water, Jesus caused the boat to immediately be at the land (Jn. 6:21). God gave Adam dominion over the sea (Gen. 1:28)—he lost that privilege when he sinned. As the new Adam, Jesus walked in and restored God's original purpose for humanity (1 Cor. 15:45).

바다 위로 걸어서: 이는 그분이 폭풍을 잠잠케 하신 일보다 (막 4:35-41) 더 큰 기적이었다. 이는 자연 법칙에 대한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준다. 그분은 베드로가 동일한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셨다. 물 위를 걷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배가 땅에 곧 도착하게 하셨다 (요 6:21). 하나님께서는 아담에서 바다에 대한 권세를 주셨지만 (창 1:28), 그는 죄를 범함으로써 이 특권을 잃어버렸다. 새 아담이신 예수님은 오셔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셨다 (고전 15:45).

- E. **Do not fear:** They feared that a ghost was coming toward them (Mk. 6:49), and Peter feared the wind when walking on the water (Mt. 14:30). Because Jesus is the Lord, we do not need to fear the most desperate need for provision or protection, even in seemingly impossible situations.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령이 다가오고 있는 줄 알았으며 (막 6:49),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때 바람을 두려워했다 (마 14:30). 예수님은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공급이나 보호에 대한 가장 절실한 필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 F. Peter walked on the water (Mt. 14:28-31). Only Matthew reported this in his gospel. Peter boldly asked Jesus to enable him to walk on water (14:28). Jesus gave him a word of command and promise (14:29). Peter started out in faith with his eyes fixed on Jesus, but soon focused on the strong winds and became afraid, then doubted Jesus' word to him, and began to sink (14:30).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으며 (마 14:28-31), 오직 마태복음만이 이 일을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에게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말했다 (14:28). 예수님은 그에게 명령이자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 (14:29). 베드로는 그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이내 강한 바람에 시선을 빼앗기고 두려워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했으며 가라앉기 시작했다 (14:30).

²⁸Peter answered Him and said, "Lord, if it is You, command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²⁹So He said, "Come." And when Peter had come down out of the boat, he walked on the water to go to Jesus. ³⁰But when he saw that the wind was boisterous, he was afraid; and beginning to sink he cried out..., "Lord, save me!" ³¹And immediately Jesus...caught him, and said to him, "O you of little faith, why did you doubt?" ³²And when they got into the boat, the wind ceased. ³³Then those who were in the boat...worshiped Him, saying, "Truly You are the Son of God." (Mt. 14:28-33)

²⁸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²⁹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³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 ³¹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³²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³³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마 14:28-33)

1. Jesus corrected Peter (Mt. 14:31), implying that he had not yet believed Jesus was God.

예수님은 베드로를 교정해주셨으며 (마 14:31), 여기서 우리는 그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You are the Son of God:** After seeing Jesus feed the 5,000 and walk on water, they now understood Jesus' identity as the Son of God, and on the very next day they reaffirmed this belief (Jn. 6:69), but they did not yet grasp His mission to die on the cross (Mt. 16:21-23).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 5,000 명을 먹이시며 물 위를 걷는 것을 본 후, 그들은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해했으며, 바로 다음 날 이 믿음을 재 확신했다 (요 6:69). 그러나 그들은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의 임무를 이해하진 못했다 (마 16:21-23).

- G. **Hardness of heart:** Mark concluded his account of the miracles of feeding the 5,000 and walking on water by interpreting the root issue—they did not understand the main message He intended for them to see when He multiplied the loaves because their hearts were hardened (Mk. 6:52).

마음이 둔하여짐(완악해짐): 마가복음은 5,000 명을 먹이며 물 위를 걷는 기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그들은 마음이 둔하고 굳어져서, 그분이 빵을 배가시키는 일을 통해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주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막 6:52).

⁵²For they had not understood about the loaves, because their heart was hardened. (Mk. 6:52)

⁵²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막 6:52)

1. The message was that He is the Sovereign Lord with all authority and that He called His disciples to partner with Him, promising to be their Provider (feeding the 5,000) and Protector (power over the sea) so that they could complete God's will in their life.

이를 통한 메시지는 바로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권적인 주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을 그분과의 함께 동역하도록 부르셨으며, 그들의 공급자(5,000 명을 먹이심)와 보호자(바다에 대한 권세)가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심이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2. They had not yet believed that He was God, even after having been given sufficient reason to believe—He revealed His power over demons, sickness, death, food, seas, storms, and more.

그들은 아직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분은 악한 영과 질병, 죽음과 음식, 바다, 폭풍우 등에 대한 그분의 권세를 드러내셨다.

3. They did not take seriously the implications of divinely orchestrated events set before them.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 앞에 펼쳐놓으신 사건들의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4. All His miracles—those in the Scripture and those released in our lives—reveal who He is.

그분의 모든 기적들(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 삶에 부어진 모든 기적들)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준다.

- H. The disciples were corrected on several occasions for “hardness of heart”—this does not speak of them being rebellious, but of not properly esteeming the things that God said or did before their eyes and not holding on to the message intended for them in those events (Mk. 6:52; 8:17; 16:14).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고 굳은 것”에 대해 몇 번 교정을 하셨다. 이는 그들이 주님께 저항하고 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 앞에서 말씀하고 행하신 일들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 사건들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한 메시지를 붙들지 않았음을 말한다 (막 6:52; 8:17; 16:14)

¹⁷But Jesus...said to them, “Why do you reason because you have no bread? Do you not yet perceive nor understand? Is your heart still hardened? ¹⁸Having eyes, do you not see? And having ears, do you not hear? And do you not remember? ¹⁹When I broke the five loaves for the five thousand, how many baskets full of fragments did you take up?” (Mk. 8:17-19)

¹⁷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¹⁸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¹⁹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둘이니이다 (막 8:17-19)

¹⁴Later He appeared to the eleven...and He rebuked their unbelief and hardness of heart, because they did not believe those who had seen Him after He had risen. (Mk. 16:14)

¹⁴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을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막 16:14)

VII. JESUS' BREAD OF LIFE MESSAGE (JN. 6:22-69)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 (요 6:22-69)

- A. The feeding miracle set the context for Jesus to reveal Himself as the Bread of Life (Jn. 6:32-59). In the synagogue in Capernaum (Jn. 6:59), Jesus used this miracle to compare Himself to bread and to explain His identity as the Son of God to those who were following Him only because of His miracles. Many are only interested in Jesus because of His ability to bless their circumstances instead of honoring Him as God—seeing Him as worthy of our wholehearted love and obedience.

5,000 명을 먹이신 기적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나타내시는 배경이 된다 (요 6:32-59).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요 6:59) 이 기적을 사용해 자신을 떡과 비교하셨고, 기적만을 이유로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설명하셨다. 많은 이들은 오로지 그들의 삶을 축복할 그분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으며,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순종하기에 합당한 분으로 보거나 하나님으로 높이지 않았다.

²²On the following day...²⁴when the people therefore saw that Jesus was not there...they also got into boats and came to Capernaum, seeking Jesus...²⁶Jesus answered them, “Most assuredly... you seek Me...because you ate of the loaves and were filled.” (Jn. 6:22-26)

²²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 ²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 ²⁶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 6:22-26)

- B. Jesus was bread from heaven, which was far superior to what Moses gave the children of Israel. He said seven times that He came from heaven—thus, He was divine (6:33, 38, 41, 42, 50, 51, 58). Jesus did not say He had the bread from heaven, but that He was that bread from heaven. They accepted Him as an anointed man of God, but not as One whose origin was in heaven—thus as God.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으며,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었다. 그분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음을 일곱 번 말씀하셨으며, 따라서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6:33, 38, 41, 42, 50, 51, 58).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으며, 그분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다. 그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사람으로는 받아들였지만, 하늘에서 오신 분, 즉 하나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³²Jesus said to them, “...Moses did not give you the bread from heaven...³³For the bread of God is He who comes down from heaven”...³⁵Jesus said..., “I am the bread of life...⁴⁰everyone who sees the Son and believes in Him may have everlasting life...”⁴¹The Jews complained about Him, because He said, “I am the bread which came down from heaven.”⁴²And they said, “Is not this Jesus, the son of Joseph...? How is it then that He says, ‘I have come down from heaven’?” (Jn. 6:32-42)

³²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 ³³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 ³⁵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 ⁴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 ⁴¹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⁴²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요 6:32-42)

- C. Jesus compared the physical bread that Moses provided with His Person as the Living Bread from heaven. He spoke of eating His flesh and drinking His blood as a metaphor for believing on Him. When He referred to drinking His blood, He was signaling that He would one day shed His blood for them. Eating blood was offensive to the children of Israel (Lev. 3:17; 17:10-14).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 받았던 떡과, 하늘에서 온 살아 있는 떡인 그분 자신을 비교하셨다. 그분은 그분을 믿는 것을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에 비유하셨다. 그분이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언젠가 그들을 위해 흘리실 피를 말씀하신 것이었다. 피를 마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불쾌한 일이었다 (레 3:17; 17:10-14).

⁴⁹“Your fathe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and are dead... ⁵¹I am the living bread which came down from heaven. If anyone eats of this bread, he will live forever; and the bread that I shall give is My flesh...” ⁵²The Jews therefore quarreled among themselves, saying, “How can this Man give us His flesh to eat?” ⁵³Then Jesus said to them, “...unless you eat the flesh of the Son of Man and drink His blood, you have no life in you. (Jn. 6:49-53)

⁴⁹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 ⁵¹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⁵²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⁵³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 6:49-53)

- D. Many of Jesus' followers were offended by His message on being the Bread of Life. Even today people are offended at Jesus for various reasons related to His message and leadership. They want to relate to Jesus on their terms, but Jesus requires that people relate Him as God on His terms.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분의 메시지에 실족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인도하심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분께 실족한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기길 원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기길 원하신다.

⁶¹...He said to them, “Does this offend you? ... ⁶²What then if you should see the Son of Man ascend where He was before? ⁶⁶From that time many of His disciples went back and walked with Him no more. ⁶⁷Then Jesus said to the twelve, “Do you also want to go away?” ⁶⁸But Simon Peter answered Him, “Lord, to whom shall we go?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⁶⁹Also we have come to believe and know that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Jn. 6:61-69)

⁶¹ 예수께서 ...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⁶²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 ⁶⁶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⁶⁷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⁶⁸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⁶⁹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요 6:61-69)

⁶⁹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라고 하니라. (한글 KJV, 요 6:69)

- E. Peter, speaking for the apostles, said that they now believed that Jesus was the Son of the God.

베드로는 사도들을 대신해 말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을 말했다.